

빙상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셀프리더십 및 스포츠 동기의 구조적 관계[†]

남정훈¹

¹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접수 2013년 2월 3일, 수정 2013년 3월 25일, 게재확정 2013년 4월 19일

요약

본 연구는 빙상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이 셀프리더십과 동기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목적에 따라 수집된 369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성취목표성향과 셀프리더십 및 스포츠 동기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요인간의 관계는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한 공분산구조분석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빙상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은 셀프리더십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취목표성향은 스포츠 동기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셀프리더십과 스포츠 동기의 관계에서는 셀프리더십이 스포츠 동기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빙상선수의 자기 주도적 성향에 성취목표성향의 역할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목표설정을 통한 자기주도성향을 향상시키는 전략적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빙상선수, 성취목표성향, 셀프리더십, 스포츠동기.

1. 서론

개인의 목표가 존재한다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방향과 강도 및 노력이 이 있음을 의미한다. 경쟁적 목표설정이론 (competitive goal setting theory)에서는 목표의 유무가 과제의 난이도는 물론 노력의 강도와 동기형성 및 지속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수행결과의 질적 수준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Nam, 2010). 이러한 점은 무한 경쟁의 원리가 지배하는 스포츠 분야에서는 보편적 기준으로 이해되고 있다.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의 역할과 기능을 규명한 Duda (1993)는 선수의 목표성향이 선수들의 기술수준과 수행의 성공여부를 결정한다고 보고하면서 선수들의 목표성향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Duda (1993)는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과제성향과 자기성향의 두 개로 나누어지며 과제성향은 운동수행 시 운동기술의 향상과 주어진 과제의 달성을 수행성공의 평가기준으로 하는데 반해 자아성향은 수행성공의 기준을 오직 타인과의 경쟁이나 비교에서 승리하는 것을 수행성과의 평가기준으로 삼는다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성취목표성향은 스포츠 분야에서 운동선수들의 행동특성이나 수행간의 심리적 요인들의 변화를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적합한 이론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선수들의 수행결과와 심리반응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는 배경변인으로 성취목표성향이 이용되고 있다 (Kim 등, 2005; Jung 등, 2010). 성취목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 (교과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0-413-G00007).

¹ (138-763)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표성향의 역할을 규명한 연구들에 의하면 성취목표성향은 선수들의 경쟁불안 (Kim 등, 2005)과 효능감 (Nam 등, 2009), 자기관리 (Jung 등, 2010; Kim과 Lee, 2009), 동기 (Jang 등, 2009) 및 운동지속 (Nam 등, 2009)이 형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취목표성향은 선수들의 수행력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이해하는데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성취목표성향은 성취귀인이론을 근거로 선수들의 자율적 조절변인들에 대하여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성취목표성향은 선수들의 자율적 욕구의 충족을 통하여 자신의 목표 달성에 대한 건설적 사고와 효율적 행동전략으로 구성된 자기 주도적 능력을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un과 Choo, 2011; Kim 등, 2011; Park 등, 2009). 즉 성취목표성향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한 영향력의 증대를 촉진하여 자기 주도적 수행력을 극대화하는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자기 주도적 수행력은 목표달성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조절하기 위한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 (Houghton와 Yoho, 2005)하며 자신의 인지와 행동에 스스로의 영향을 미치는 자기 영향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러한 자기 주도적 수행력은 셀프리더십 (self leadership)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며 목표달성에 대한 행동 지향적 (behavior-focused) 전략, 자연적 보상 (natural reward) 전략 및 건설적 사고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등의 하위 구성요소 구성된다 (Neck과 Houghton, 2006; Yang, 2008). 목표달성에 대한 행동지향적 전략은 목표달성과정에서의 비효율적 행동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 행동을 증진전략으로서 자기관찰, 자기암시, 자기비평의 전략을 이용한다 (Yang, 2008). 자연적 보상은 목표달성의 즐거움을 통해 동기유발이나 보상을 갖게 되는 전략으로 목표달성에 대한 긍정적 동기형성을 촉진한다 (Song과 Yang, 2008). 마지막으로 건설적 사고는 자신의 생활패턴과 사고방식을 긍정적 사고와 바람직한 습관의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전략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자신의 신념을 형성한다 (Manz과 Sims, 2001).

이러한 자기 주도적 수행력인 셀프리더십은 세 가지 하위전략을 통한 목표달성의 자기 동기와 자기조절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근거로 확장된 자기관리 이론으로 볼 수 있다 (Houghton과 Yoho, 2005). 선수들의 동기에 대한 셀프리더십의 기여도를 규명한 연구 (Kim 등, 2010; Park 등, 2010)들에 의하면 셀프리더십은 선수들의 동기형성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으며 셀프리더십의 수준에 따라 동기의 성향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빙상경기는 크게 스피드 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및 피겨종목으로 구성된다. 예술적 표현과 연기력을 경기력으로 이해하는 피겨와 달리 스피드 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은 순위와 기록을 통하여 경기승패를 결정한다. 이로 인하여 빙상선수들은 다른 종목의 선수들에 비해 성취목표성향의 특성과 경기력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Kim, 2006). 빙상종목의 하나인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은 경기의 승패가 오로지 경쟁을 통한 순위로만 결정한다. 그러나 이에 비해 스피드 스케이팅은 상대적 경쟁보다는 기록을 통해 경기의 승패를 결정한다. 이러한 경기 운영방식의 차이는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빙상선수의 스트레스의 원인을 규명한 Kim과 Ahn (2008)의 연구에서는 빙상선수의 스트레스 주원인이 경기방식에서 기인하며 특히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경기방식의 일치정도와 빙상선수들의 스트레스 유발과 수행력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자기성향중심의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일 경우나 과제성향의 선수가 쇼트트랙 스피드 선수일 경우 스트레스의 수준은 높고 경기력은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성취목표성향이 빙상선수들의 특성과 경기력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빙상선수들의 경기력이나 경기력과 관련된 다양한 심리요인의 기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빙상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이들과의 관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성취목표성향과 선수들의 자기 주도적 수행력인 셀프리더십 및 동기에 관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성취목표성향은 빙상선수의 경기력과 관련된 심리요인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선수들의 경기력과 관련된 셀프리더십과 동기에도 성취목표성향의 기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빙상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선수들의 경기력과 상관성이 높은 셀프리더십 및 동기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선행연구를 근거로 빙상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셀프리더십 및 스포츠 동기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빙상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은 셀프리더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빙상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은 스포츠 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빙상선수의 셀프리더십은 스포츠 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목적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성취목표성향이 빙상선수의 경기력에 대한 기여도를 이해하는데 실증적 근거가 됨은 물론이며 나아가 빙상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수립에 실증적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비확률표집법인 편의표집법을 이용하여 전국의 빙상선수를 모집단으로 선정한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빙상선수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선 팀을 방문하기 전 사전연락을 통하여 연구의 협조 의사를 구하였으며 협조 의사를 밝힌 팀을 연구자 외 4명이 방문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작성 방법으로 설문실시 전 연구목적과 설문작성방법을 설명한 후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작성 후 현장에서 설문작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미기입이나 중복 기재 또는 편중되게 작성한 설문을 추려내어 설문태도와 동기를 확인한 후 다시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총369부의 설문이 수집되었으며 자료 분석 전 검토한 결과 불성실하게 작성된 자료 없이 369부 모두 분석에 활용되었다.

Table 2.1 Research target

		n	%
Sex	male	265	71.8
	female	104	28.2
Events	speed	233	63.2
	short	136	36.8
	high	183	49.6
Team	college	115	31.2
	general	71	19.2

2.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의 조사도구는 핵심자기평가와 셀프리더십 및 스포츠 동기의 검사지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도구의 구성타당도와 신뢰도 분석결과는 Table 2.2와 같다.

2.2.1. 성취목표성향

빙상선수들의 모교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지는 Kim (2001)의 성취목표성향검사지를 사용하였다. 검사지의 구성은 2요인 (자기성향, 과제성향)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각 문항의 문항반응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점도 및 왜도 값이 ± 2 이상, 응답빈도가 50% 이상 나타나 정규성을 위배하는 문항 (7, 8, 11, 13)이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기술통계분석 후 성취목표성향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사회과학분야에 적합한 최대우도법과 직접 오블리민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요인의 적재값이 .40이하로 나타난 문항 (1)과 요인적재값이 두 요인에서 .40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을 나타낸 문항 (3, 10)을 제외한 2요인 6문항을 재구성되었다. 신뢰도는 자기성향이 .763, 과제성향이 .732로 나타났다.

Table 2.2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EFA & CFA

Que	self orientation	task orientation
O 6	.843	.253
O 4	.842	.001
O 9	.751	.256
O 2	.065	.786
O 5	.156	.773
O12	.230	.747
whole	2.738	1.229
dispersion	45.633	20.491
cumulative	45.633	66.123
α	.763	.732

latent variable	route	measurement	standard variation	S.E.	C.R.	
self orientation	→	O 9	.626	-		
		O 6	.909	.151	10.448	
		O 4	.673	.040	.10.21	
Task orientation	→	O 5	.744	-		
		O 2	.623	.103	9.320	
		O12	.588	.141	8.449	
model	χ^2	df	Q	GFI	TLI	RMSEA
first	24.30	9	2.7	.96	.93	.07
standard	-	-	3	.90	.05	.08

2.2.2. 셀프리더십

Table 2.3 Self-leadership EFA & CFA

Que	action oriented	constructive thought	natural reward
L2	.851	.210	.076
L3	.824	.198	.137
L4	.824	.207	.162
L1	.791	.219	.031
L5	.639	.041	.370
L6	.633	.140	.363
L13	.159	.794	.178
L14	.178	.727	.172
L12	.128	.697	.281
L15	.179	.696	.083
L11	.213	.532	.333
L19	.093	.162	.744
L18	.130	.255	.725
L20	.293	.127	.677
L17	.125	.297	.605
whole	6.005	1.862	1.213
dispersion	40.043	12.410	8.084
cumulative	40.043	52.454	60.537

latent variable	route	measurement	standard variation	S.E.	C.R.	
action oriented	→	S4	.691	-		
		S2	.949	.089	15.438	
		S1	.861	.085	15.193	
constructive thought	→	S15	.593	-		
		S14	.727	.128	10.079	
		S13	.781	.126	10.432	
natural reward	→	S12	.676	.112	9.643	
		S20	.644	-		
		S19	.627	.103	9.360	
		S18	.722	.118	10.229	
		S17	.625	.104	9.336	
model	χ^2	df	Q	GFI	TLI	RMSEA
first	464.57	87	5.34	.85	.82	.10
last	112.85	41	2.75	.94	.93	.06
standard	-	-	3	.90	.05	.08

빙상선수들의 셀프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지는 Yang (2008)이 Prussia 등 (1998)의 셀프리더십 검사지를 한국 상황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한 검사지로 Park 등 (2010)의 연구와 Jang (2012)연구를

통하여 스포츠 분야에서 검사지의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셀프리더십 검사지는 행동지향적 전략, 자연적 보상, 건설적 사고전략의 3요인 20문항과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셀프리더십 검사지의 문항반응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응답빈도에서 50% 이상의 반응을 보인 문항 7번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셀프리더십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최대우도법, 직접 오블리민)을 실시한 결과 두 요인에서 요인적재값이 .40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을 나타낸 문항 (9, 10, 16)과 요인 적재값이 .40이하로 나타나 요인의 의미성을 저해하는 문항 (8)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초모형적합도가 적합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수정을 실시하였다. 모형 수정은 수정지수 (MI)를 이용하여 수정을 실시하였다. 모형 수정결과 적합지수를 저해하는 문항 (3, 5, 6, 11)이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수정 후 모형적합지수는 적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최종 셀프리더십 모형의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요인부하량이 .50이상, 요인 간 상관관계가 .50이하로 나타나 셀프리더십 모형의 판별타당도와 집중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탐색 및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3요인 11문항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요인별 신뢰도는 행동지향적 전략 .866, 건설적 사고 .784, 자연적 보상 .749로 나타났다.

2.2.3. 스포츠 동기

Table 2.4 Sport motivation EFA & CFA

Que	inner motivation	immotive	extrinsic motivation
M13	.851	.062	-.034
M10	.807	-.101	.179
M15	.763	.096	.245
M 4	.716	-.012	.371
M20	.704	.225	.033
M11	.675	.006	.070
M2	.629	.315	.211
M19	.614	.220	.167
M 1	.486	.329	.309
M 5	.180	.826	-.169
M 3	-.180	-.793	.059
M21	-.086	.785	.182
M14	.268	.713	-.157
M 7	.105	.102	.785
M 6	.152	.084	.726
M 9	.235	-.335	.717
M12	.242	-.360	.601
whole	5.649	3.113	1.497
dispersion	33.229	18.310	8.805
cumulative	33.229	51.539	60.344

latent variable	route	measurement	standard variation	S.E.	C.R.
inner motivation	→	M20	.793	-	-
		M19	.820	.060	9.334
		M15	.665	.112	11.332
		M13	.702	.099	12.223
		M11	.644	.175	13.443
immotive	→	M10	.593	.177	8.223
		M14	.883	-	-
		M15	.902	.112	14.332
		M 3	.788	.104	11.331
		M12	.771	-	-
extrinsic motivation	→	M 9	.644	.163	9.443
		M 7	.595	.103	8.221
		M 6	.801	.033	14.221
		M 6	.801	.033	14.221

model	χ^2	df	Q	GFI	TLI	RMSEA
first	243.22	48	5.06	.81	.83	.10
last	110.11	24	2.79	.93	.91	.07
standard	-	-	3	.90	.05	.08

빙상선수들의 스포츠 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지로는 Moon 등 (2009)의 스포츠 동기 검사지를 바탕으로 Lee 등 (2012)이 구성타당도 검증을 통해 재구성한 스포츠 동기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3요인 (내적동기, 외동기, 무동기) 21항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다.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스포츠 동기 검사지 문항의 문항반응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다중공선성을 위배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동기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 (최대우도법, 직접오블리민)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적재값이 .40이하로 타난 문항 (8, 16)과 두 요인 이상 요인의 적재값이 .40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을 나타낸 문항 (17, 18)이 분석에서 제외되어 Table 2.2에서 나타난 것처럼 3요인 18문항으로 재구성되었다.

새롭게 재구성된 요인구조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최초모형적합지수가 수용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수정을 실시하였다. 모형수정은 수정지수 (MI)값을 이용하여 수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정지수 (MI)가 높은 문항 (1, 4, 21)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모형 수정 후 모형적합지수는 수용타당하게 나타났다. 모형 수정을 통해 모형적합도의 수용기준을 확보한 후 모형에 대한 잠재변수와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 및 요인 간 상관을 확인한 결과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모두 요인부하량이 .5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요인 간 상관은 .50이하로 나타나 스포츠 동기 모형의 판별타당도와 집중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탐색 및 확인적 요인 분석결과 3요인 15문항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요인별 신뢰도는 내적동기 .892, 무동기 .863로, 외적동기 .842로 나타났다.

2.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369부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와 AMOS 18.0을 이용하여 자료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한 탐색 (최대우도법, 직접오블리민) 및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빙상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셀프리더십 및 스포츠 동기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AMOS 18.0을 이용하여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3.1. 성취목표성향과 셀프리더십 및 스포츠 동기의 상관관계

Table 3.1 Correlation

	SE	TE	AO	CT	NR	IM	IMM
SE	1						
TE	.026	1					
AO	-.056	.421**	1				
CT	-.028	.509**	.394**	1			
NR	.112*	.505**	.112**	.221**	1		
IM	.622**	.277**	.010	.201**	.334**	1	
IMM	.060	-.462**	-.155*	-.533**	-.377**	.486**	1
EM	.118*	.521**	.432**	.322**	.402**	.676**	.406**

*p<.05, **p<.01

빙상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셀프리더십 및 스포츠 동기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취목표성향의 자기성향은 셀프리더십의 건설적 사고와 스포츠 동기의 내적동기와 외적동기에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성향은 행동지향과 자연보상, 건설적 사고, 내적동기 및 외적동기에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무동기에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과 스포츠 동기의 관계에

서는 자연보상과 건설적 사고는 외적동기와 외적동기에는 정적상관이, 무동기에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지향은 외적동기에는 정적상관이 있으며 무동기에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성취목표성향과 셀프리더십 및 스포츠 동기의 관계

성취목표성향과 셀프리더십 및 스포츠 동기의 구조관계는 2단계 분석방법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우선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한 다음 적합도가 검증된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각 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3.2.1.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성취목표성향과 셀프리더십 및 스포츠 동기의 구조관계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성립된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Table 3.2 Goodness-of-fit test & relation analysis

χ^2	df	Q	TLI	RMSEA	GFI	CFI	RMR
28.767	17	1.692	.96	.043	.97	.97	.03
latent variable	route	measurement	factor loading	standard error	<i>t</i>		
achievement goal	→	task orientation	.718	-			
		self orientation	.512	.124	7.907		
self leadership	→	action oriented	.572	-			
		natural reward	.694	.134	7.811		
		constructive thought	.733	.111	7.919		
sport motivation	→	immotive	.535	-			
		extrinsic motivation	.801	.244	9.798		
		inner motivation	.851	.230	9.914		
	route	coefficient	standard error	<i>t</i>	verification		
AGO	→	SL	.881	.085	6.521***	O	
AGO	→	SM	.512	.035	7.902***	O	
SL	→	SM	.553	.154	7.818***	O	

*** $p < .001$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며 간명성으로 인해 권장 (Lee와 Nam, 2012; Lee와 Park, 2012; Hong, 2000)되고 있는 TLI (Tucker-Lewis index)와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기준모형의 적합지수 Q값(/df), GFI (goodness of fit index), RMR (root mean square residual), CFI (comparative fit index)지수 등을 통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Table 3.2에서 제시된 것처럼 TLI=.96, RMSEA=.043, GFI (comparative fit index)=.97, RMR=.03, CFI=.97로 나타나 최초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적합기준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와 Park, 2012). 연구모형의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반영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다중상관제곱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R^2)을 고려한 요인적재값을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의 요인적재량은 유의수준 .000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성취목표성향과 셀프리더십 및 스포츠 동기의 연구모형은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 성취목표성향과 셀프리더십 및 스포츠 동기의 관계

성취목표성향과 셀프리더십 및 스포츠 동기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Table 3.2.에서 제시된 것처럼 첫

째, 성취목표성향과 셀프리더십의 관계에서는 경로계수가 $\beta=.881$ ($t=6.521, p < .001$)로 나타나 성취목표성향은 셀프리더십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취목표성향과 스포츠 동기의 관계에서는 경로계수가 $\beta=.512$ ($t=7.902, p < .001$)로 나타나 성취목표성향은 스포츠 동기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셀프리더십과 스포츠 동기의 관계에서는 경로계수가 $\beta=.553$ ($t=7.818, p < .001$)로 나타나 셀프리더십이 스포츠 동기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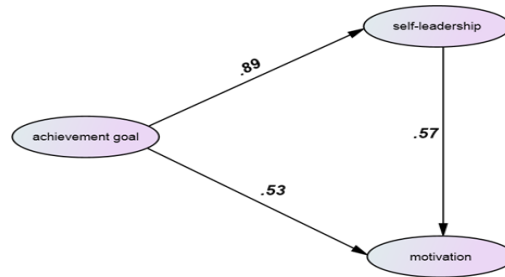


Figure 3.1 Structural equation model

4. 논의

이 연구는 정상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셀프리더십 및 스포츠 동기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정상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셀프리더십 및 스포츠 동기간의 관계를 규명한 결과 정상선수의 성취목표성향은 셀프리더십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취목표성향이 선수들의 자율적 조절변인들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고 보고한 Kim 등 (2011) 및 Chun과 Chu (20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한편, 셀프리더십이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적 전략으로서 능률적인 사고와 태도로 형성된다는 점 (Manz와 Neck, 2004)과 목표의 존재가 효과적인 목표달성에 대한 개인의 인지 및 판단활동을 촉진한다는 목표귀인이론 (Duda, 1993)을 함께 고려한다면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셀프리더십 연구들은 셀프리더십을 자기통제개념으로 이해하여 셀프리더십의 기저요인으로 자기관리 (Carver와 Scheier, 1998)와 내적동기 (Deci와 Ryan, 1985)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이외에 성취목표성향이 셀프리더십의 기저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셀프리더십의 형성기전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관리와 내적동기 및 성취목표성향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에 의해 성취목표성향의 역할에 관한 연구들의 고찰을 실시하였으며 고찰결과 성취목표성향은 자기관리와 내적동기의 형성을 결정하는 결정요인으로서 이들 요인들의 상위개념으로 나타났다 (Park, 2011; Koo와 Yoon, 2012). 그러므로 셀프리더십의 형성에 있어서 성취목표성향이 자기관리나 내적동기 보다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수들의 셀프리더십의 극대화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수 자신의 적극적 의지를 반영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취목표성향과 스포츠 동기의 관계에서는 성취목표성향이 스포츠 동기의 형성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취목표성향이 동기의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고한 연구 (Kim, 2011; Moon, 2005; Yoo와 Kang, 2004)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성취목표이론에 따르면 목표의 설정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조절 인지활동을 촉진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능동

적인 행동에 관한 동기의 형성을 촉진 한다 (Jung, 2007). Moon (2005)의 연구에서는 자기성향 또는 과제성향의 성취목표는 성취목표의 특성과 상관없이 내적 및 외적 동기의 형성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Moon (2005)의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본다면 성취목표성향은 종목의 특성이나 성별의 상관없이 성취목표성향이 스포츠 동기의 형성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셀프리더십과 스포츠 동기의 관계에서는 셀프리더십이 스포츠 동기의 형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셀프리더십을 자신이 처해있는 현실의 평가를 통해 보다 나은 환경이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신을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 동기화 과정으로 정의 한다 (Houghton과 Yoho, 2005; Manz와 Neck, 2004). 그리고 셀프리더십은 외적동기를 의미하는 자연적 보상은 물론 개인의 기대나 목표를 달성하는 내적동기의 형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촉진 한다 (Houghton과 Yoho, 2005). Deci와 Ryan (1985)은 셀프리더십은 자기 결정감을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내재적 동기를 유도함으로써 가장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목적적 행동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셀프리더십은 다른 리더십에 비해 높은 수준의 과업활동에 대한 동기화를 일으킨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빙상선수들의 셀프리더십이 스포츠 활동에 대한 동기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셀프리더십의 긍정적 동기화과정을 지지함과 동시에 빙상선수들의 효과적인 동기화전략으로 셀프리더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빙상선수들의 성취목표 성향과 셀프리더십 및 스포츠 동기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빙상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셀프리더십의 관계에서 성취목표성향은 셀프리더십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빙상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스포츠 동기의 관계에서 성취목표성향은 스포츠 동기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빙상선수의 셀프리더십과 스포츠 동기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은 스포츠 동기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빙상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셀프리더십 및 스포츠 동기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성취목표성향과 셀프리더십 및 스포츠 동기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은 성취목표성향과 동기가 성별이나 경력 등의 선수특성에 따라 유의한 수준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특성에 따른 이들 요인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요인간의 실증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분석을 이용하여 특성에 따른 요인간의 관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취목표성향이 선수들의 수행력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동기의 기저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선수들의 수행력에 관한 연구들은 동기가 수행력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성취목표성향과 동기의 관계를 근거로 본다면 성취성향목표가 동기를 매개로 선수들의 수행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선수들의 수행력에 관한 연구들은 성취목표성향과 수행력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선수들의 수행력과 성취목표성향과의 실증적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Carver, C. S. and Scheier, M. F. (1998). *On the self-regulation of behavior*,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NY.
- Chun, B. K., and Choo, S. J. (2011). The relationship among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tenacity and sport commitment of university athletes. *The Korea Journal of Sport Science*, **20**, 469-481.
- Deci, E. L. and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NY.
- Duda, J. L. (1993). Motivation in sport settings : A goal perspective approach. In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 edited by G. C. Roberts, Human Kinetics, Champaign, IL, 57-91.
- Hong, S. H. (2000). Rasch rating scale modeling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5**, 124-139
- Houghton, J. D. and Yoho, S. K. (2005). Toward a contingency model of leadership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When should self-leadership be encouraged? *Journal of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Studies*, **11**, 65-83.
- Jang, D. S., Gwon, C. L. and Kim, S. H.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fectionism that tennis players perceive and the 2x2 goal orientation.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8**, 113-127.
- Jang, H. C. (2012). *The effects of servant and charismatic leadership on worker's behavioral outcomes: The mediating role of self-leadership*, Ph. D.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Jung, J. H., Lee, Y. M. and Kim, J. H.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 goal orientation and self management of woman's basketball players.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1**, 143-159.
- Kim, B. J. (2001). Goal orientation as a predictor of sources of enjoyment and stress in youth sports.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12**, 125-140.
- Kim, C. M., Bae, Y. H. and Han, T. J. (2005). The affect of amateur golfer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sport participation motivation on the types of attribution. *Korea Sport Research* **16**, 645-654.
- Kim, D. H. (2011). *The influence of middle school P.E. clas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n intrinsic motivation*, Ph. D.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Kim, H. J., Yang, M. H. and Kim, D. J. (2010). Relationships between athletes' perception of coaches'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sport motiva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high school and college athlet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15**, 193-208.
- Kim, K. K. and Ahn, H. S. (2008). The situational sources of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for elite speed-skaters and short track-skaters. *Journal of Sport Science*, **19**, 154-163.
- Kim, K. K. (2006). *Sources of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in elite speed skaters*, Ph. D. Thesis,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Seoul.
- Kim, M. H., Song, Y. G. and Park, J. H. (2011). The relationship of achievement goals on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sports person ship for youth athletes'.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13**, 41-53.
- Kim, M. L. and Lee, D. H. (2009). Analysis of casual structure among self-management,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sport coping in boxing athlete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8**, 139-148.
- Koo, S. Y. and Yoon, Y. J. (2012). Verification on the relation model of baseball club member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elf-management, exercise immersion, and exercise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1**, 479-489.
- Lee, J. M. and Park, C. (2012). A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career maturi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3**, 333-342.
- Lee, M. S., Kim, H. G. and Nam, J. H. (2012). Empowerment and motivation predicted by relationship between badminton coaches-athlet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3**, 179-190.
- Lee, M. S. and Nam, J. H. (2012).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rvant leadership, empowerment and sports satisfaction of badminton coach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3**, 317-331.
- Lim, J. Y. (2009). The two dimensional types of career development, self-leadership, and self-efficacy in the Korean engineer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Engineering Education*, **12**, 13-20.
- Manz, C. C. and Neck, C. P. (2004). *Mastering self-leadership: Empowerment yourself for personal excellence*, Pearson Prentice-Hall, Upper Saddle River, NJ.
- Manz, C. C. and Sims, H. P. (2001). *The new super leadership: Leading others to lead themselves*, Berrett-Koehler, San Francisco, CA
- Moon, B. R., Lee, B. J. and Kim, D. H. (2009). Verification of validation of sport emotion scale and

- relationship of sport motivation.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0**, 31-46.
- Moon, Y. J. (2005). The effect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participation motivation on the physical education attitude in elementary school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14**, 121-131.
- Nam, I. S., Lim, S. H., Lee, G. B., Kim, S. G. and Kim, K. H. (2009). The effect of goal orientation on physical self-efficacy and commitments for tennis club member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37**, 1585-1595.
- Nam, I. S., Roh, M. R. and Yeo, J. E. (2009). The effect of participation level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on sport commitment and exercise adherence intention of man tennis clubs member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Leisure & Recreation*, **33**, 45-55.
- Nam, J. H. (2010). The verification on relation model for achievement goal, sport emotion and sport motivation of woman athletes. *Journal of Korean Physical Education Association for Women*, **24**, 49-63.
- Nam, J. H., Kim, S. M. and Oh, J. H.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psychological need and emotion among leisure sport participant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41**, 1125-1134.
- Neck, C. P. and Houghton, J. D. (2006). Two decades of self-leadership theory and research past developments, present trends, and future possibilitie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1**, 270-295
- Park, B. H. (2011). An investigation of mediated effect of self regulation motivation i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relations among athletic satisfaction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0**, 91-103.
- Park, K. H., Kim, Y. J. and Sung, H. K. (2009). The relationships between badminton player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motivation typ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port Science*, **18**, 457-466.
- Park, Y. M., Kim, H. B. and Nam, J. H. (2010). Relationship among self-leadership, physical self-efficacy and exercise flow of golf play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port Science*, **20**, 541-555.
- Prussia, G., Anderson, J. S. and Manz, C. C. (1998). Self-leadership and performance outcomes: The mediating influence of self-efficac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9**, 523-538.
- Song, J. S. and Yang, P. S. (2008). A study on the effects of core self-evaluations on person-organization fi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based on the chemical industry of the Ulsan Metropolitan City. *Korea Industrial Economics Association*, **10**, 223-246.
- Yang, P. S. (2008). *The impact of core self-evaluations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Ph. D.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 Yoo, J. K. and Kang, P. J. (2004). Achievement orientations of middle-school students in physical education. *Korea Sport Research*, **15**, 1045-1054.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elf-leadership and sport motivation of skating athletes[†]

Jung Hoon Nam¹

¹Sport Science Institute,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Received 3 February 2013, revised 25 March 2013, accepted 19 April 2013

Abstract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elf-leadership and sport motivation of skating athletes. The data were collected out of skating athletes in Seoul and Gyonggi area, and total 369 copies of data were utilized in this study. To verify the relationships among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elf-leadership and sport motivation, the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for each factor were analyzed using SPSS18.0 and AMOS18.0 program. And the relationships among three factors were analyzed using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f skating athletes had positive effects on self-leadership. Second, th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f skating athletes had positive effects on sport motivation. Third, the self-leadership of skating athletes had positive effects on sport motivation.

Keyword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elf-leadership, skating athlete, sport motivation.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0-413-G00007).

¹ Research professor, Sport Science Institute,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Seoul 138-763, Korea.
E-mail: n7j7h7@empal.com